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양성이 평등한 미래사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모르고, 설령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양성 평등 교육을 '지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성평등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에 담긴 철학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올해로 운영 4년차에 접어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직접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뒤, 이를 녹여내 손수제작물(UCC)을 만들어본다.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결과물을 제작하며 흥미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끈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실장으로부터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고 들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실장이 총 책임자로 있는 교수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성평등교육진흥원 체험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녹아있다. 하지만 이 실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찾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왜일까.

교사가 적절한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학교만이 학생들이 속한 세계는 아니다. 학생들은 가정, 또래집단, 지역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다.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여러 환경에서 매번 새롭게 맞닥뜨리는 성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거가 있어야 비로소 성평등 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데, 그 준거는 바로 내가 처한 일상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확립될 수 있다. 특히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한 성별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그 어떤 생각과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평등 의식이 내면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교육. 그러므로 지식을 제공하는 이론교육은 오히려 최소화해도 무방하다. 이 실장은 “지식의 적립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적립한 지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성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시키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통이 빠져선 안 돼

양성평등 교육에서 ‘소통’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성차별은 여성도, 남성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한 성별의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며, 여성은 남성의, 남성은 여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토론’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예를 들어보자. 실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중 한 학생은 ‘운동회 때 남학생들만 운동장으로 응원용 의자를 옮기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그렇다’는 반론도 나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 또 다른 학생이 ‘힘이 약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의자를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자만 의자를 옮기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차별의 결과’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혼자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면서 소통이 이뤄지고, 이 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가진 한계를 파악하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사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남성, 또는 여중이라서 혹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없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경험만,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의 경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여성일지라도 남성 중심의 시각을 비판 없이 갖고 있기도 하며, 남성임에도 여성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모두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이 실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프로그램에 ‘설득과 공감’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 가져야...

교내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

교육현장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선 교사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 교사 역시 성차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되는 것.

특히 교사가 무의식적으로 ‘특’ 내뱉는 말도 학생들의 성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긴장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그것을 뿌리 뽑기 매우 어렵기 때문.

교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 성 범죄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교사의 역할 중 하나다.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이 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해당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

“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내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이 실장)

▶글·사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